

‘공경히 지키고 보배로이 간직하다’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 (보물),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복장’ (보물), ‘장흥 신흥사 소장 정방사명 동종’, ‘고흥 봉래사 신종도, 원효사 출토 유물’ 등.

위 성보들은 지역 말사에서 도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송광사성보박물관에 기탁한 유물들이다. 지난해까지 조사가 완료된 광주전남지역 말사 12곳의 유물들로, 남도 불교 미술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성보들이다.

성보박물관은 그동안 말사에 봉안된 불상, 불화, 복장유물 등을 안전하게 수장고에 보관해왔다. ‘공경히 지켜왔지만’ 한편으로 불교 미술과 불교 유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과 사찰 신도들이 직접 친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되는 성보들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고흥 봉래사 석조석가여래좌상’

것은 그 때문이다.

조계총림 송광사성보박물관은 불기 2570년 새해를 맞아 성보 특별전 (13일~내년 2월 28일)을 연다.

지역 말사들이 기탁한 120여 점을 일반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이번 전시 주제는 ‘敬守寶藏 (경수보장) (경수보장)’. 말 그대로 ‘공경히 지키고 보배로이 간직하다’라는 의미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한번쯤 되새겨야 할 경구다. 무엇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문화유산이 대거 첫 선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주제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영조가 7세에 썼던 ‘송죽 (松竹)’이라는 글을 보고 남긴 글에서 인용했다. 구체적으로 “영조 7세 때의 어필로 참으로 세상에 드문 귀중한 보배이니 공경히 지키고 보배로이 간직하라 (英祖七歲時御筆 眞稀世重珍 須敬守寶藏)”고 쓴 ‘배관기’ (拜觀記)에서 인용한 것.

특히 전시에서는 광주 원효사에서 출토된 성보들도 볼 수 있는데, 지난 1983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전시된 이후 43년 만에 이번에 공개된다. 성보박물관은 지난 2017년 국립광주박물관과 동국대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던 성보를 이관 받아 보관해왔다.

김태형 학예실장은 통화에서 “송광사성보박물관은 그동안 지난 30여 년간 지역 말사에서 기증하거나 기탁한 유물을 잘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전시는 유물의 가치뿐 아니라 그것에 담긴 마음과 노력까지도 대중들과 공유하고 교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시 성보들은 역사적, 예술적으로나 그 가치가 뛰어난 유물”이라며 “남도 불교미술의 진수를 깊이 있게 뿜아



‘광주 자운사 가사고리’

볼 수 있

을 것으로 기

대한다”고 덧붙였다.

원효사 출토 유물은 아가자기화면서도 정밀한 조형미가 특징이다. 1980년 원효사 대웅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굴됐다.

학계에서는 금동불상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거나, 일부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됐을 것으로 본다. 소조불두는 대부분 진흙으로 제작됐으며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흥 수도암 치성광여래도’는 그동안 훼손 상태가 심해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보존처리를 마치고 이번에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고흥 봉래사 석조여래좌상’, ‘고흥 봉래사 신종도’도 관객들을 맞는다.

광주 증심사에서 기탁한 채용신 작 ‘鄭萬在 六十八世 眞影 (정만재 육십팔세 진경)’도 전시에 포함됐다. 무관 출신으로 후일 여진화가로 발탁됐던 채용신은 사진을 토대로 초상화를 그릴 만큼 사실적 묘사가 뛰어났다. 정만재의 초상화도 마치 눈앞의 실제 인물을 보는 듯한 사실적 표현이 압권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송광사 성보박물관 ‘敬守寶藏’ 전

원효사 금동불상·천은사 신종도 등

지역 말사 기탁 120여점 전시

13일~내년 2월 28일



‘구례 천은사 신종도’.

〈송광사성보박물관 제공〉

작가회의 ‘아름다운 작가상’에 여수 출신 한창훈 소설가 선정

한국작가회의(이사장 강형철)의 ‘제24회 아름다운 작가상’에 여수 출신 한창훈(사진) 소설가가 선정됐다.

한국작가회의젊은작가포럼(위원장 김태선 평론가)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작가상’은 젊은 작가들이 선배들에게 마음으로 헌정하는 상이다.

1992년 대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한 작가는 지금까지 소설집 ‘가든 새 본다’,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 ‘그 남자의 연애사’를 비롯해 장편 ‘홍합’, ‘열여섯의 섬’, ‘꽃의 나라’,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등을 펴냈다. 한겨레문학상, 요산문학상, 허균문학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선배들이 젊은 작가에게 수여하는 ‘내일의 한국작가상’ (11회)은 문경수 시인이 결정됐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남준 시인)는 작품활동과 사회적 실천이라는 기준을 병행해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작가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소정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 (24회)은 김재희 씨(시 부문), 홍해랑 씨(소설 부문), 수경 씨(동시 부문)가 뽑혔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3시)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강형철 이사장은 “각 부문 상들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시상식은 한국작가회의 정기총회 식전 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년 자립역량 강화 프로젝트’ 삶다센터 인턴 모집...13일까지

진학이나 취업이라는 익숙한 궤도에서 벗어난 청년들은 종종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조금한 충고와 마주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차분히 들여다보고 삶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간일지 모른다.

광주청소년삶다자이센터(삶다센터)가 그런 청년들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 프로젝트’ 6기 인턴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현재 미취업 상태인 19~24세 청소년이다. 접수는 삶다센터 누리집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된 인원은 3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인턴십은 카페 운영과 프로그램 실무 두 분야에서 총 4명을 선발해 약 1년간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맡아 일의 기본기를 익히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단순한 보조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을 지닌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2021년부터 이어져 온 이 프로젝트는 성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립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업무 경험과 함께 협업과 소통, 관계 맺기 등을 배우며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 설계 과정도 병행해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한다.

정민 삶다센터 교육기획팀장은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정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자신이 바라는 삶의 모습을 구체화해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나주역에서 시작된 독립운동 불씨, 무용극으로 되살아난다

비상무용단, 문체부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 나주학생독립운동 소재 창작 무용극 ‘댕기머리’ 9월 초연

단정히 땀은 소녀의 머리끝에서 역사가 흔들렸다. 1929년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은 학생 간 충돌로 번졌고, 이를 제지하던 일본인 경찰의 편파적 대응은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 불씨는 광주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며 항일 학생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역사적 순간이 현대무용극으로 다시 태어난다.

나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상무용단(대표 박종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전남에서는 유일할 사례다.

이번 사업은 무용·연극·음악·전통 등 순수예술 단체의 창작을 지원해 지역 공연예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다. 올해는 전국 62개 지역에서 102개 단체가 참여해 41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비상무용단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국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지원받아 신작 제작과 공연 준비에 착수한다. 작품은 9월에 나주에서 초연될 예정이다.

무대에 오를 작품은 창작 무용극 ‘댕기머리’다. 1929년 나주역 사건에서 비롯된 학생독립운동의 출발점을 되짚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나주의 역사적 의미를 환기하겠다는 취지다.

작품은 사건의 발단과 확산을 따라가며 그 의미를 현재의 시점에서 되짚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미디어아트와 음악을 결합해 흐름을 보완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당시 학생들의 선택이 오늘의 일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줄 계획이다. 연극과 뮤지컬 등에서 다뤄져 온 소재를 무용으로 풀어내는 만큼 역사적 무게를 지키면서도 동시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박종임 대표는 “학생독립운동의 시작이 나주였다는 사실을 지역 청소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춤이라는 언어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무용단은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박종임 교수를 중심으로 2007년 창단된 이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 2019년 제28회 전국무용제에서 ‘멘토즈의 시계’로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지난해에는 문체부 지역대표 예술단체로 선정돼 ‘K-풍류 나주의 전설: 청명’을 선보인 바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비상무용단 창작공연 ‘K-풍류 나주의 전설: 청명’의 한 장면.

〈비상무용단 제공〉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건물 리모델링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갓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